

有關韓國518光州事件轉型正義的教材評介—— 韓國老師怎麼教518？

韓国5・18光州事件の移行期正義についての教材に関する評論と紹介——

韓国の教師は5・18事件をどう教えるか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이행기정의적교육자료평가-한국의 교사들은 어떻게 518을 가르칠 것인가?

The Introduction to and Comments on the Transitional Justice Material on the Gwangju Massacre in South Korea

文・圖 | 朱立熙 (知韓苑執行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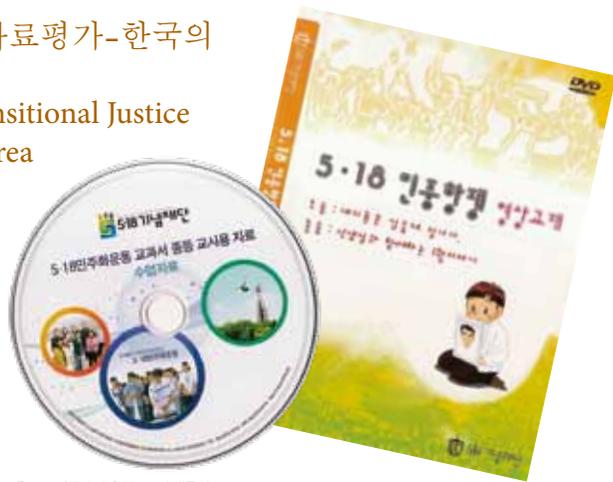
以「光州抗爭」事件（註一）為主題的2007年韓國最賣座電影《華麗的假期》（註二），讓許多新世代的韓國人看了之後，無不半信半疑地問道：「這真的是發生在韓國的事件嗎？國家的軍人怎麼能犯下這種大屠殺的暴行呢？」

光州事件發生在1980年5月18日至27日，今年正好屆滿三十週年。其間經過六任總統，在1994年金泳三執政時被正名為「518民主化運動」，1995年並通過「518特別法」，在次年將兩名血腥屠殺的前總統全斗煥與盧泰愚判處重刑定讞，2002年進一步制訂「光州民主化運動有功者禮遇法」，使得「轉型正義」（韓國人的用語是「過去清算」）完全得到落實。

光州市民為全韓國人民所付出的犧牲，雖然因司法清算而得到了歷史正義，而且518精神（守護民主、人權與和平）的傳承，也是韓國的人權團體不遺餘力持續在推動的工作，但是李明博的保守政權上台之後，對518精神的認同並不積極，甚至迭有「應恢復『光州事件』稱謂」的提議。



本文作者朱立熙。



「518紀念財團」出版的《中學教師用：518民主化運動授課DVD教材》。

「518紀念財團」出版的《國小/國中用：518民衆抗爭影像教材》。

2007년 흥해 했던 “광주항쟁” 사건을 주제로 한 한국영화 “화려한 휴가”를 본 신세대 한국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게 진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국가의 군인이 어떻게 이런 대학살의 폭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반신반의하듯 묻는다.

광주사건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발생했다. 올해로 만 30주년이 된다. 그간 6명의 대통령이 재임을 했는데, 1994년 김영삼대통령 집권시기에 ‘518민주화운동’으로 제 이름을 찾게 되었고, 1995년 ‘518민중항쟁 특별법’이 제정 되었으며,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대 학살의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형을 판결 받았다. 2002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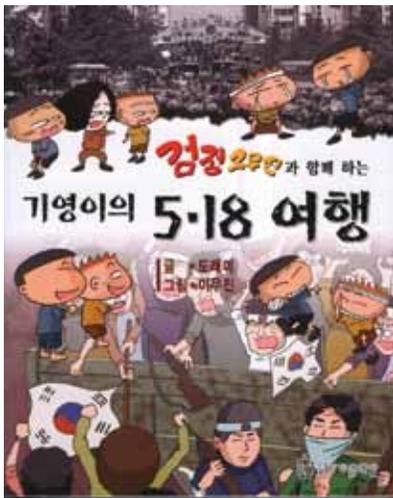
在這樣的情況下，有關518在歷史教科書中的呈現，也隨著「歷史解釋權者」的理念而有所改變。因此，這是一個「現在進行式」的議題。光州抗爭事件的歷史定位，在韓國的教科書中顯然還未定案。

韓國的教科書講授光州事件，最初是安排在國小六年級上學期的「社會科」課本的125頁至128頁「民主市民勝利的日子」單元。把大韓民國政府成立以後民主發展的過程：從「419學生革命」推翻李承晚政權，到518民主化運動以及1987年「六月抗爭」對韓國民主化的影響等，這些現代史上的重大事件，要在兩個小時的課堂上介紹完畢。

對許多國小社會科的老師而言，兩個小時內要講述四十年的現代史大事件，確實力有未逮，學生聽完之後，頂多只能知曉事件的名稱而已，至於是否記得住事件名稱，則因人而異。對新世代學生而言，30年前發生的光州事件，儼然已成為「死的歷史」了。

至於如何教導光州事件，也只能憑任課老師的良知而定。有些老師會挪用社會科其他單元的時間來教，有些老師則會刻意安排在五月份才教，配合518紀念日的活動新聞來加深學生的印象。更用心的老師，會教學生從www.518.org的網站去搜尋資料，或是利用「518紀念財團」所出版的教材（包括影音、漫畫、資料集等），當做上課的輔助材料。

通常，讓學生印象最深刻的，是他們看到被凌遲致死的受難者形貌時，那種難以置信而瞠目結舌的表情。如此，才能夠將國家暴力的殘酷性，烙印在他們的腦海之中。也有些老師會播放〈獻給你的進行曲〉，這首光州抗爭最



「518紀念財團」出版的《518紀行》影音教材。

이 제정되어 과거청산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시민이 전 한국민을 위해 치렀던 희생이 사법청산으로 역사의 정의를 얻어내고, 518정신(민주수호, 인권보장, 평화유지등)의 계승은 한국의 인권단체가 전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이 명박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로는 518정신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고 심지어 ‘광주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되돌릴 것을 제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518이 역사 교과서 중에 나와있는 것에 관해서도 ‘역사해석권자’의 이념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진행형’의 이슈인 것이다. 광주 항쟁사건의 역사적 위치는 한국의 교과서 속에서 아직은 미정한 사건인것 같다.

한국교과서에서는 광주사건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의 125쪽에서 128쪽까지 ‘민주 시민이 승리하던 날들’이라는 단원에서 맨 처음 소개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정부수립 후 민주발전의 과정을 이승만 정권을 뒤엎었던 ‘419학생혁명’에서부터 518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항쟁까지가 한국민주화에 미친 영향 등 이러한 현대사의 중대사건을 2시간의 수업시간에 소개를 해야 한다.

많은 초등학교의 사회과목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2시간 내에 40년의 현대사 대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역부족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기껏해야 사건의 명칭 정도를 아는 것이 다일 것이다. 사건의 명칭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신세대학생들에게는 30년 전 광주사건이 이미 ‘죽은 역사’



永遠降半旗的光州望月洞518舊墓園，在夕陽餘暉下更顯悲涼。

著名的歌曲給學生聽，並告訴他們這首歌製作的背景，是為了一對受難戀人的冥婚儀式。

這首已成為韓國街頭運動的「國歌」的曲子，幾乎全韓國人人都會唱。特別是在金大中總統上任的1998年起，每年在518紀念儀式時，都會由總統帶領全體閣員高聲齊唱，而讓這首歌更為普及。但是很諷刺的是，這首歌竟然在今年三十週年的紀念儀式上，被李明博政府禁唱，而引發受難家屬在場外抗爭。李明博的保守政權對光州事件的不認同，也由此可見一斑。

一位忠清南道牙山郡的國小校長金英柱，很認真地以五小時的時間講授光州事件之後發現，學生不僅熟知光州事件的過程，也對民主是甚麼、如何守護民主、對暴力的反感等，都有了基本的認識。他寫在2004年《我們的初等教育》五月號的一篇文章：〈五月，來學習518民主化運動！〉中說，「看到小六學生上過518的課後，能夠去思考自己的將來要怎麼過，這就是為人師表感到最有意義的事了。」他認為，啟迪學生絕不能為了自己的野心而施暴他人，這樣的觀念從小就深植學生內心，讓他們長大後能夠成為「民主公民」，才是傳授518精神的意義所在。

教導學生對國家暴力事件的正確認識，並不是要揭歷史的瘡疤，也不是要撕裂族群，誠

gotten 事 같다.

光州사건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는 담당 선생님의 양심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선생님들은 사회과의 다른 단원시간을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 어떤 선생님은 일부러 5월에 맞추어 가르치는데 518기념일행사신문기사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좀더 생각이 있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www.518.org의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게 하기도 한다. 또는 '518기념재단' 에서 출판한 교재(동영상, 만화, 자료집등) 들을 수업보조교재로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인테 다들 너무 놀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국가폭력의 잔학성을 학생들의 머리 속에 기억시킬 수 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광주항쟁의 가장 저명한 가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 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노래의 제작배경이 한 쌍의 고난을 받는 연인의 영혼결혼식이라는 설명을 해주기도 한다.

이 곡은 이미 한국의 가두운동의 '애국가' 라고 할 수 있는 곡이다. 거의 전 한국민이 모두 부를 줄 알고,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재임했던 1998년부터는 매년 518기념식 때마다 대통령이 전체 각료장관들을 대동해서 함께 불러 이 곡이 더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노래가 올해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명박 정부에 의해 금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난자 가족들이 장외에서 항의를 했다. 이명박 보수정권이 광주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충청남도 아산군의 초등학교교장 김영주선생님은 5시간 동안 광주사건에 대해 매우 열심히 강의를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광주사건의 과정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무엇

實地面對歷史悲劇，讓學生了解真相後，更大的效益才會跟著而來。學生也才能夠真正領悟美國哲學家喬治·桑塔雅納（George Santayana）的箴言：「遺忘歷史，必重蹈覆轍。」（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的真諦所在。

註一：全斗煥等一幫野心軍人在1979年12月12日發動政變掌握軍權後，為了進一步控制政權，在1980年5月策動「陷阱策略」，濫殺無辜的國家暴力迫使光州民衆挺身組成市民軍對抗。經過10天的無政府狀態，軍政府於5月27日派出空降特種作戰部隊強力鎮壓，平息了這場10天的光州抗爭事件，總計有207人死亡，987人失蹤，4300多人輕重傷；但是下令開火鎮壓的元凶迄未釐清。駐韓美軍在光州事件中，不僅事前知情，並且從旁協助派兵鎮壓，導致韓國人群情激憤，韓國因而從「親美」國家成為全世界「最反美」的國家；光州事件之後，為了追究真相與平反受難者，也帶動了南韓社會運動團體的蓬勃發展，光州事件在南韓現代史上可說是一個分水嶺事件。1996年全斗煥與盧泰愚這兩位屠夫前總統被判處重刑刑定讞，轉型正義在16年之後得到充分落實，還給光州人起碼的歷史正義，也鞏固與深化了南韓的民主。



註二：《華麗的假期》這部電影在2007年暑假上檔，吸引了七百萬觀眾，打敗當時保持最賣座紀錄的《鐵達尼號》。《華麗的假期》是全斗煥派遣最精銳的部隊鎮壓光州的軍事行動代號。這部電影以虛擬人物來陳述一個真實事件，整部電影沒有深邃的電影語言、高超精妙的劇本對白和讓人眼花撩亂的場景鏡頭設計，電影製片人用最淺顯、最大眾、最有親和力的方式和電影語言照著時間演進，讓韓國一般人能夠在二個小時內，上完一場精采的歷史課！本片台灣片商並未進口，過去兩年間「二二八事件紀念基金會」曾以轉型正義教材做非營利放映，有興趣觀看的人可以跟筆者聯絡：rickchu@nccu.edu.tw。



光州事件最後激戰地：全羅南道廳遺址將保留做為「亞洲文化殿堂」。

이며, 어떻게 민주를 지켜야 하는지, 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지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고 발견했다. 김영주 교장이 2004년 '초등 우리교육' 5월호에 쓴 '5월, 518민주화 운동을 공부하자' 라는 글 중에서 초등학교6학년학생이 518수업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된 사례를 보았는데 이것이 교사로서 가장 보람 있게 느꼈던 일이다. 김교장은 학생들에게 절대 자신의 야심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도해야 하고, 이런 관념은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민주시민'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518 정신의 의의이다.

국가폭력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인식을 가르쳐주는 것은 역사의 상처를 들춰내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것도 결코 아니다. 성실하게 역사의 비극을 마주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진상을 알게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따라 올 것이다. 학생들도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했던 '역사를 잊으면 반드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라는 말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